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내무부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편집자註〉

인류가 살아가는 곳

대만이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후로부터 지구의 생물체로 하여금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시키고 대자연의 땅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어느 한 人土가 世人에게 「우리의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경고를 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환경오염문제를 도외시하여 우리의 임의대로 오염을 일으켰으며 즉,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할 방법을 연구하는데 태만하여 생물체가 각종 오염으로 인하여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 모두가 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아직도 인류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구외의 다른 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달이나 수성, 화성, 금성, 목성 및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태양계의 천체중에 인류에게 자연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천체는 한 군데도 없



地球上只有一個我們
地球上沒有第二個人
地球上沒有第三個人
地球上沒有第四個人

地球上只有一個人
地球上沒有第二個人
地球上沒有第三個人
地球上沒有第四個人

地球上只有一個人
地球上沒有第二個人
地球上沒有第三個人
地球上沒有第四個人

地球上只有一個人
地球上沒有第二個人
地球上沒有第三個人
地球上沒有第四個人

었다.

그것들은 어떤 천체는 산소가 부족하고 어떤 천체는 물이 부족하고 어떤 천체는 생물체가 자라지 않아 요컨데 인류가 그러한 천체에서 도착하여 살려면 반드시 대량의 음식물과 산소등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렇더라도 음식물을 다 먹고 산소도 다 쓰고 물도 다 마시고 나면 최후에는 역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인류가 지구를 떠나 태양계의 기타 천체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 즉,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지구만을 갖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환경을 파괴한다면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모두가 중요시 하는 바의 환경보호이고 대자연의 생태계를 보호하자 는 최근의 생각이다.



①



③



②



⑤

